



# 천적 천위페이 꺾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천위페이(중국)를 꺾고 우승을 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 말레이 마스터즈 우승

배드민턴 여자 단식 2-0 '7전8기' 복식 화순군청 정나은-김혜정 3위

대한민국 배드민턴 애시스 안세영(삼성생명)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천위페이(중국)를 2-0(21-17, 21-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의 기쁨은 더했다. 천위페이는 이 대회 전까지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천적이다. 천위페이와 상대전적 7전 7패로 절대열세였다.

결정적 승부처였던 2020도쿄올림픽 8강전에서도 발목을 잡힌 바 있다.

안세영은 천위페이를 경기시간 38분만에 일축했다.

1세트를 21-17로 따낸 후 2세트는 천위페이를 압도했다. 21-5로 한수위 경기력을 선보여 천위페이를 정크스를 털어냈다.

지난 4월 한국 오픈 우승 후 컨디션 난조로 슬럼프에 빠진 안세영은 3개월 만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일궈냈다.

안세영은 지난 9일 열린 4강전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튜중(인도네시아)을 2-1(21-18 13-21 21-8)로 꺾었다.

1세트 12-9에서 7연속 득점으로 승기를 잡은 안세영은 이후 상대에 8점을 연속으로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남은 두 점을 차분하게 올려 첫 세트를 따냈다.

2세트에선 경기 중반 집중력 저하로 13-21로 졌지만, 3세트에선 경기 시작 후 5연속 득점을 내는 등 완벽하게 기선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며 21-8로 마무리했다.

안세영은 우승을 확정짓고 "벽이라고 느꼈던 선수를 결승에서 이겨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겨 지지 않았다"며 "이번 승리를 계기로 남은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체고를 졸업한 안세영은 풍암초 1학년 때 라켓을 처음 잡은 이후 5학년 때는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대회 여자 단식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다.

중학교 1학년까지 3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광주체육중 3학년 때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대표팀에 발탁돼 천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안세영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쓸 주역으로 꼽힌다. 1996년 방수현 이래 단식 노메달의 불명예도 씻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복식 정나은(화순군청)-김혜정(삼성생명)은 마쓰야마 나미-시다 지하루(일본)에 0-2(22-24 13-21)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돼 3위에 머물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 장수정, 여자프로테니스 노디아오픈 우승

"웁블던 본선 대기 첫 번째였는데 아쉽게 본선에 못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125K 시리즈 노디아오픈(총상금 11만5000달러)에서 우승한 장수정(27·대구시청)의 소감이다.

WTA 단식 세계 랭킹 155위 장수정은 9일(현지시간) 스웨덴 베스타드에서 열린 노디아오픈 단식 결승에서 리베카 마사로바(146위·스페인)를 2-1(3-6 6-3 6-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WTA 투어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장수정의 우승 소식을 전하며 "1982년 이덕희가 WTA 투어

어 포트마이어스 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한국 선수 단식에서 우승한 가장 큰 대회"라고 평가했다.

장수정이 우승한 WTA 125K 시리즈 대회는 투여보다 한 등급 아래지만 세계 랭킹 100위권 이내 선수들이 다수 참가한 수준급 대회다.

남자프로테니스(ATP)와 비교하면 투어 바로 아래 등급인 챌린저에 해당한다.

조운정이 2002년과 2003년, 2006년에 WTA 투어 대회 단식 결승에 세 차례 올랐지만 모두 준우승했고, 장수정이 이번에 WTA 125K 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귀국길에 오르는 장수정은 "US오픈 전에 대회 2개 정도를 뒀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호령·이우성 특급 수비 KIA, 전반기 최소한 5위



화력 고민에 빠졌던 '호랑이 군단'의 연패 탈출 힌은 수비였다.

KIA 타이거즈는 한화 이글스와의 주말 시리즈를 통해서 끝없는 추락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원정길에서 만난 키움 히어로즈와 SSG 랜더스에게 연달아 스윙패를 당하는 등 7연패를 안고 홈으로 돌아온 KIA는 주중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도 1패를 더했다.

비로 두 경기기 취소되면서 숨을 고른 KIA는 이어 올 시즌 6전 전승을 기록한 한화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섰다.

지난 8일 원래 로테이션보다 하루 앞당겨 이의리가 출격했다.

이날 이의리는 7회까지 던지면서 단 2개의 피안타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 중 하나가 김민환에게 내준 스리런. 이의리는 1-3에서 등판을 마무리했고, KIA는 박찬호와 이창진의 연속 안타로 시작된 7회말 폭투와 황대인의 적시타 등으로 5-3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하지만 연패 탈출을 앞두고 9회 위기가 찾아왔다.

2점 차에서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했고, 첫 타자 김태연과의 승부에서 3루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이 나왔다.

이어 정은원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무사 1-2루, 김민환의 땅볼로 1사 1-3루가 됐다. 정해영이 이진영을 3루수 파울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투아웃은 만들었다. 하지만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전개된 하주석과의 승부, 공이 멀리 좌중간으로 향했다.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중견수 김호령이 빠르게 달려가 공을 낚아채면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경기가 끝난 뒤 덕아웃에는 "김호령이 다 살렸다"는 외침과 함께 김호령의 이름이 뜨겁게 불렀

다.

마음만 급했던 '막내' 김도영을 살리는 김호령의 수비이기도 했다.

9회 시작과 함께 실책을 기록했던 김도영은 "공을 잡지도 않았는데 먼저 던지려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야 한다"며 "(김호령 선배) 수비 정말 멋있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9일에는 이우성이 외야에서 날아올랐다.

이날 경기 흐름도 전날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선발 임기영이 5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흔들리면서 초반 흐름은 한화가 주도했다.

하지만 KIA가 5회말 김호령의 안타를 시작으로 김선빈의 적시타와 상대의 실책 등으로 3-4 추격을 했고, 6회말 타진 김석환의 동점 솔로포 등을 앞세워 6-4로 승부를 뒤집었다.

7회초 나온 한화 김태연의 솔로포로 6-5의 박빙의 승부가 전개됐고, 이번에는 1점 차에서 마무리 정해영이 9회 마운드에 올랐다.

초구에 선두타자 변우혁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한 정해영은 희생번트와 볼넷으로 1사 1-2루에서 김태연을 상대했다. 우익수 플라이를 유도하면서 투아웃. 하지만 정은원이 때린 공이 좌측 깊숙한 곳으로 날아가면서 동점 주자에 이어 역전 주자까지 홈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수비로 들어갔던 이우성이 좌측 선상 앞에서 몸을 날려 공을 잡아냈다.

이 수비로 경기는 다시 KIA의 승리로 마무리됐고, 덕아웃에서는 '이우성'이 뜨거운 이름이 됐다. 이현곤 외야 수비 코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이우성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다.

연달아 스윙패를 당했던 지난주 5경기에서 1점 차 패배를 기록했던 KIA는 '특급 수비'로 1점과 2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8연패 뒤 한숨을 돌렸다.

한편 KIA는 '수비의 힘'으로 만든 승리로 전반기를 최소 5위로 마감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태극기를 들고 입국한 토트넘 선수들. 프리 시즌 투어를 위해 입국한 토트넘 동료들과 송훈민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FC, 부천 꺾고 서울로 ... 오늘 이랜드 상대 원정경기

'승리 분능'을 깨운 광주FC가 연승을 위해 서울로 간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K리그2 26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앞선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승리의 DNA를 되찾았다. 아론의 선제골에 이어 엄지성의 득점이 나오면서 2-1 승리를 기록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투혼의 승부를 펼치면서 5경기 만에 승리도 만들어냈다. 또 이 승리를 통해 광주는 23경기 만에 '승점 50' 고지를 밟았다.

현재 2위 대전하나시티즌과 승점 9점 차 1위. 안정적인 선두 체제를 다시 구축한 광주는 연승으로 우승 결승선을 향해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더운 날씨, 땀뻑한 일정에도 광주는 성공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선발과 교체 출전 선수 모두 완벽한 호흡으로 제몫을 해주면서 체력은 아끼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은 키우고 있다.

앞선 부천전을 통해 광주는 화력 재점화에 성공했다. 16개의 슈팅을 날린 광주는 6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전반 12분 호주 출신 수비수 아론이 이오뜸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해 K리그 데뷔골을 만들었고, 엄지성은 마이키의 패스를 받아 침착한 마무리로 시즌 5호골을 장식했다.

새로 팀에 가세한 산드로도 두 번째 경기에서도

4차에 위력적인 슈팅을 날리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이권희, 허을 등도 좋은 컨디션으로 출격을 준비하는 등 광주는 두터워진 공격자원으로 다득점을 노리고 있다.

서울이랜드는 올 시즌 4승 11무 7패(승점 23점)를 기록, 8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는 서울이랜드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2승을 거두는 등 역대 전적에서 8승 2무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광주가 승리 행진을 위해 재시동을 걸었지만 서울이랜드는 최근 10경기에서 1승 6무 3패를 기록하고 있다.

화력을 깨운 광주가 자신감을 앞세워 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